

KRIVET Issue Brief

2023

253호

발행인 류장수 | 발행일 2023년 3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

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: 2005년 졸업자와 2018년 졸업자 비교를 중심으로

-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취업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진학률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- 2005년 직업계고 졸업자는 졸업 직후 전문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, 2018년 졸업자는 임금 근로 비율이 가장 높음.
- 2005년 졸업자는 졸업 후 주로 '선진학-후취업' 형태의 이행 경로를 보인 데 비해, 2018년 졸업자는 졸업 후 계속해서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재직하는 경로가 대표적임.
-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 변화는 2005년 졸업자와 2018년 졸업자 모두 상용직 임금근로 상태 유지가 주된 경로로 나타남.
- 고졸 친화형 노동시장 조성 등 적극적인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주 |

이 글은 '류장은 왜(2022), 「직업계고 졸업자의 경력경로 유형과 특성」, 한국직업능력연구원」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, 재정리함.

직업계고 졸업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위해 노동시장 이행 양상에 대한 탐색 필요

-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취업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(50.7%('20)→57.8%('22)), 진학률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(42.5%('20)→45.2%('22)).
- 직업계고 졸업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.
- 이 글에서는 2005년 직업계고 졸업자와 2018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를 비교·분석함으로써 직업계고 졸업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「한국교육고용패널(KEEP) I (1-12차년도)」 및 「한국교육고용패널(KEEP) II (1-5차년도)」

- 분석 대상: KEEP I의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차(2004년)~12차(2015년) 자료 및 KEEP II의 직업계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 1차(2016년)~5차(2021년) 자료 중 졸업 후와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

〈표 1〉 분석 자료 구성

분석내용	표본구성 기준		전체
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	KEEP I	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 연도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	831명
	KEEP II	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 연도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	2,500명
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 변화	KEEP I	첫 노동시장 진입 시점부터 5년간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 중 5년째 되는 시점에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은 표본	504명
	KEEP II	2018년 노동시장 진입 이후 4년간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 중 4년째 되는 시점에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은 표본	1,127명



KRIVET 모바일홈

02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

| 졸업 직후 시점 기준, 2005년 졸업자는 전문대학 진학자가 가장 많은 반면 2018년 졸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음.

-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학교 졸업 직후 시점(KEEP I : 2005년, KEEP II : 2018년)을 기준으로 노동시장 이행 상태를 살펴보면, 2018년 졸업자는 2005년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근로 비율이 높고 진학 비율이 적은 특징을 보임.
- 2005년 졸업자(KEEP I)의 경우 전체 2,000명의 표본 중 결측을 제외하고 전문대학 진학 표본이 741명(37.1%)으로 가장 많았고, 임금근로(405명, 20.3%), 4년제 대학 진학(320명, 16.0%), 미취업(196명, 9.8%) 등의 순으로 많음.
- 2018년 졸업자(KEEP II)는 결측을 제외하고 임금근로 상태에 있는 표본이 1,101명(30.5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미취업(854명, 23.6%), 전문대학 진학(572명, 15.8%), 4년제 대학 진학(270명, 7.5%) 등의 순으로 많음.

〈표 2〉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직후 시점 노동시장 이행 상태

(단위: 명, %)

노동시장 이행 상태	2005년 졸업자(KEEP I)		2018년 졸업자(KEEP II)	
	인원	비율	인원	비율
임금근로	405	20.3	1,101	30.5
비임금근로	8	0.4	29	0.8
4년제 대학 진학	320	16.0	270	7.5
전문대학 진학	741	37.1	572	15.8
미취업	196	9.8	854	23.6
결측	330	16.5	789	21.8
전체	2,000	100.0	3,615	100.0

| 주 |

- 1) 비임금근로는 자영업자, 고용주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무급가족 종사자를 의미함.
- 2) KEEP II에서 근로와 진학이 중복되는 표본은 진학으로 제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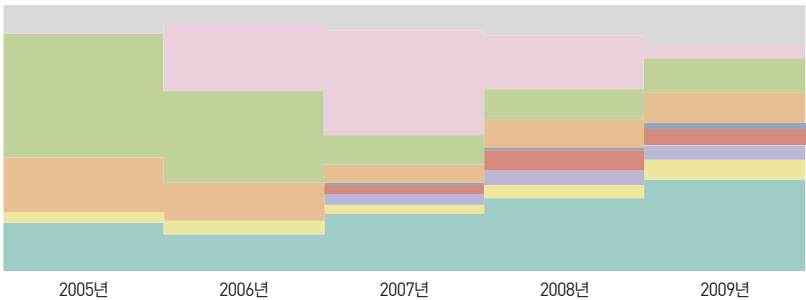
| 2005년 졸업자는 주로 대학 진학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로를 보였으며, 2018년 졸업자는 계속해서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재직하는 경로를 주로 보임.

- 2005년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초기에는 전문대 재학의 분포가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분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.
- 2005년 졸업자(KEEP I, n=831)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의 대표 경로는 '전문대 재학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(○)', '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(□)', '전문대 재학 중 병역 수행(△, ▽)', '4년제 대학 재학 중 병역 수행(■, ●)', '4년제 대학 재학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(▲)' 등의 형태로 나타남.

| 주 |

1) n=831

- 임금근로자(상용직)
- 임금근로자(임시·일용직)
- 학업·근로병행(상용직)
- 학업·근로병행(임시·일용직)
- 비임금근로자
- 4년제 이상 재학
- 전문대 재학
- 병역
- 미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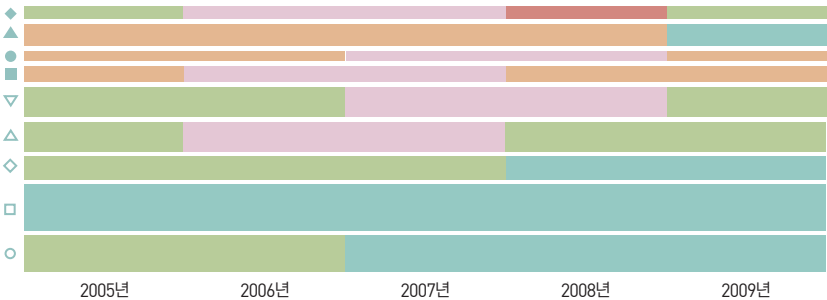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1〉 2005년 졸업자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

| 주 |

1) n=831

- 2) 준거(criterion)=밀도(density), 범위(coverage)=25.8%
 - 3) 대표 경로별 두께는 각 경로의 수에 비례함.
- ◆ 전문대 재학 중 병역 및 학업·근로 병행(임시·일용직)
 - ▲ 4년제 대학 재학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
 - 4년제 대학 재학 중 병역 수행
 - △▽ 전문대 재학 중 병역 수행
 - ◇ 전문대 재학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
 - 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
 - 전문대 재학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



〈그림 2〉 2005년 졸업자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대표 경로(9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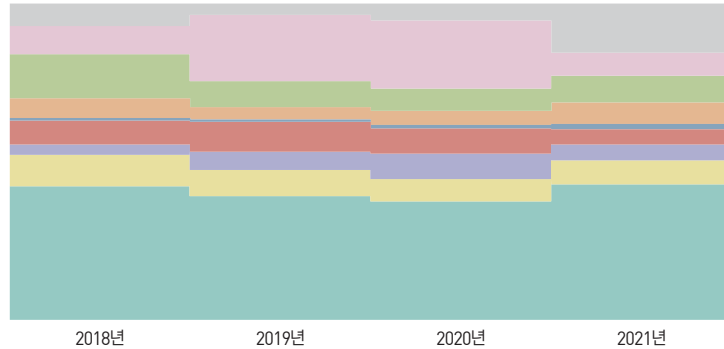
- 2018년 졸업자는 계속해서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남.

- 2018년 졸업자(KEEP II, 2,500명)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의 대표 경로는 '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(○)'와 '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 후 퇴사(□)'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.

| 주 |

1) n=2,500

- 임금근로자(상용직)
- 임금근로자(임시·일용직)
- 학업-근로병행(상용직)
- 학업-근로병행(임시·일용직)
- 비임금근로자
- 4년제 이상 재학
- 전문대 재학
- 병역
- 미고용



[그림 3] 2018년 졸업자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상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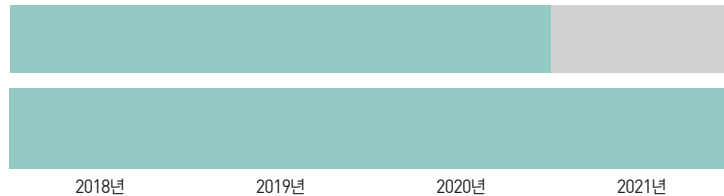
| 주 |

1) n=2,500

2) 준거(criterion)=밀도(density), 범위(coverage)=26.9%

3) 대표 경로별 두께는 각 경로의 수에 비례함.

- 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 후 퇴사
- 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



[그림 4] 2018년 졸업자의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대표 경로(2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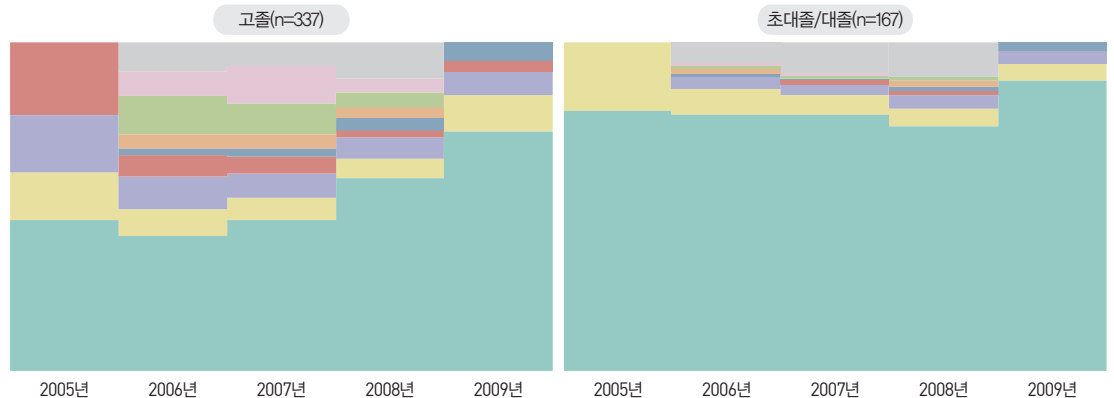
03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 변화

| 2005년 졸업자와 2018년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, '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'가 주된 경로라는 공통점을 보임.

- 「고졸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2005년 졸업자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, 시간이 지날수록 상용직 임금근로 상태 비율이 증가함.
- 2005년 졸업자(KEEP I, 504명) 중 초대졸 및 대졸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, 5년간 상용직 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, 이는 고졸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졸업자들이 학위 취득과 병역으로 이탈을 경험하는 것과 대비됨.
- 2005년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의 대표 경로를 살펴보면, 고졸의 경우 학업-근로병행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경로와 상용직 임금근로를 유지하는 경로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며, 초대졸 및 대졸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를 유지하는 경로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남.

| 주 |

- 임금근로자(상용직)
- 임금근로자(임시·일용직)
- 학업-근로병행(상용직)
- 학업-근로병행(임시·일용직)
- 비임금근로자
- 4년제 이상 재학
- 전문대 재학
- 병역
- 미고용



[그림 5] 2005년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 변화(좌: 고졸, 우: 초대졸/대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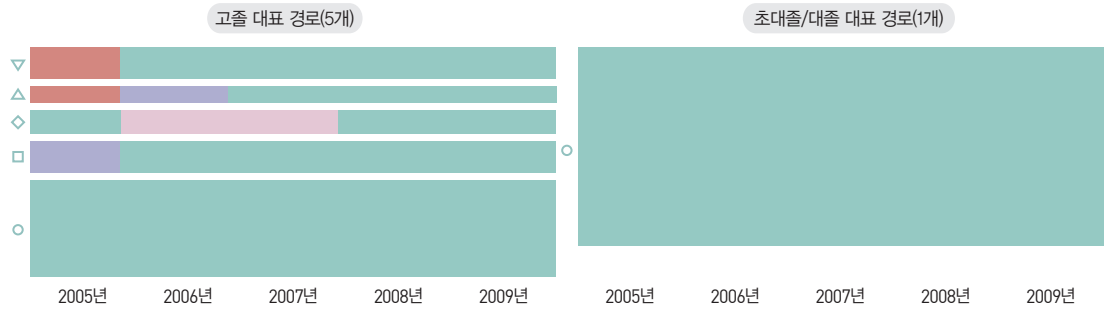
| 주 |

1) n=337(고졸), n=167(초대졸/대졸)

2) 준거(criterion)=밀도(density), 범위(coverage)=25.5%(고졸), 46.7%(초대졸/대졸)

3) 대표 경로별 두께는 각 경로의 수에 비례함.

- ▽ 학업-근로병행임시·일용제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
- △ 학업-근로병행임시·일용제→ 상용직 임금근로자
- ◇ 상용직 임금근로 중 병역수행
- 학업-근로병행상용제 후 상용직 임금근로자
- 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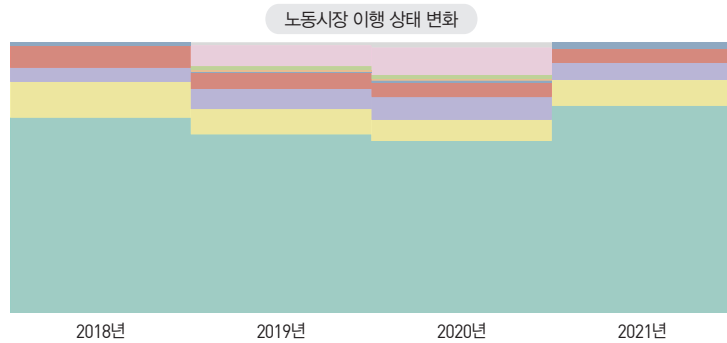
[그림 6] 2005년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대표 경로(좌: 고졸, 우: 초대졸/대졸)

- 2018년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 변화는 상용직 임금근로 분포가 4년간 가장 크다는 점에서 2005년 졸업자 중 고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, 2005년 졸업자 중 고졸에 비해 상용직 임금근로 상태 비율이 높고, 학업-근로병행이나 대학 진학 및 미취업 상태로의 이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.
- 2018년 졸업자(KEEP II, 1,127명)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의 대표 경로는 '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'로 나타남.

| 주 |

1) n=1,127

- 임금근로자(상용직)
- 임금근로자(임시·일용제)
- 학업-근로병행(상용직)
- 학업-근로병행(임시·일용제)
- 비임금근로자
- 4년제 이상 재학
- 전문대 재학
- 병역
- 미고용



[그림 7] 2018년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상태 변화

| 주 |

1) n=1,127

2) 준거(criterion)=밀도(density), 범위(coverage)=53.2%

3) 대표 경로별 두께는 각 경로의 수에 비례함.

- 상용직 임금근로자 유지



[그림 8] 2018년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후 이행 대표 경로(1개)

04 시사점

- 과거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졸업 후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했다면, 최근의 직업계고 졸업자들은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후 해당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.
 - 이는 『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(2010)』 발표 이후 고졸 취업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왔던 효과로 볼 수 있음. 다만, 2005년 졸업자보다 2018년 졸업자의 졸업한 해 미취업 비율이 높음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진로지도 없이 취업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함.
-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비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열어졌음을 보여주며, 관청은 일자리 발굴, 고졸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원, 졸업생 사후관리 시스템 활성화, 경력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적극적인 고졸 취업 지원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함.

류 지 은 |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

| 각주 |

1) 교육과학기술부(2010). 『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』